원각사, 520년 만에 재건불사 추진한다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원각
원각사 건립위해 부지 마련
4층 규모 건립…12월 입주
원경 스님 "불사 동참" 당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탑골공원 앞에 재건될 조계종 원각사 조감도.

국가유산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인근에서 30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에 나섰다.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은 물론 잃어버린 불도량의 재건을 위해서다.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주지 원경 스님)는 6월 18일 무료 급식소 원각사 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각사 재건 불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원각사 재건은 부처님 자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각사지인 서울 탑골공원 담장 옆에서 30년째 무료급식을 이어온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됐다. 1994년 무료급식을 시작한 보리 스님의 뜻을 2015년 이어받은 원경 스님(전 조계종 사회부장)은 안정된 급식을 위해 부지 마련을 발원했고, 올해 2월 원각사지 인근(낙원동 213-7번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원경 스님은 새로운 터전을 불교, 복지,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변모시켜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면적 257㎡(78평) 규모로 지하에 주방(33㎡)을 마련하고 1층에는 무료급식소(66㎡) 2층 법당(66㎡) 3층 사무실 및 접견실(46㎡) 4층 음식 박물관과 차실(46㎡) 등 지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원경 스님은 "문화재와 국가공원 등으로 원각사지에 불사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주변 담이 헐리면 새로 마련한 법당에서 탑신을 첨안 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경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면서 "향후 주변 건물도 매입, 낙원동을 극락정토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경 스님은 그간의 마음고생도 털어놨다.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인 무료 급식소를 2015년 4월 인계받아 9년째 이끌고 있는 원경 스님은 "무료 급식소는 주변 상권에서 환영받는 공간이 아니고, 임대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급식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가져야 했다"면서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은 무료급식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봉사자들과 십시일반 함께한 후원자들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원각사 불사는 9월 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12월에 개원될 예정이다. 8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안 원각사 10층 석탑 앞에서 고불식을 봉행한다.

원경 스님은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서원과 함께 잃어버린 불도량의 520년만의 재귀환, 환지본처의 시절 인연을 이뤄내겠다는 발원으로 시작된 불사"라면서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대원력 불사가 성취되고 밝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각사는 고려 때부터 흥복사라는 이름으로 전승돼왔던 사찰로 세종이 불교 종파를 선교양종으로 통합한 뒤 조계종 본사가 됐다.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이 이 절을 '연방원(聯芳院)'이라는 기방(妓房)으로 만들고 스님들을 내몰아 폐사됐다. 이후 서양식 공원으로 조성돼 대중에 개방됐고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장소가 됐다. 현재 원각사지에는 십층석탑(국보)와 대원각사비만 남았다.

후원계좌 : 농협 301-0242-6472-21
원각사공덕회 : 02-762-4044

진우 스님, 민주당 불교특위에 "전통유산 보존 계승"

6월 20일, 김영배 위원장 등 15명 예방
"국민 건강 위한 선명상 보급에 관심"


진우 스님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 불교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불교문화의 체계적 계승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위원들이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위원장을 필두로 한 위원 15명의 예방을 받은 진우 스님은 이날 전통문화 계승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덕분에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관람료 폐지와 전통사찰 자부담 면제, 전기료 지원 등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22대에 처음 입성한 여러 의원들도 선배 의원들의 활동을 잘 이어 받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불교계와 전통문화에 대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잘 챙길 테니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다. 선명상센터에도 큰 관심을 표한 김 위원장은 "명상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조직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종단과 긴밀하게 협의, 불교특위가 종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국민들의 건강과 마음 행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불교 용어보다는 보편적이고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전국 템플스테이 150여 곳과 명상센터 등에 보급하고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국민들이 스스로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봉행될 '국제 선명상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김병주, 민병덕, 이수진, 윤건영, 곽상언, 김동아, 염태영, 이광희, 정준호, 전진숙, 박희승, 문대림, 박홍배, 노욱선 의원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상진 스님 "파리올림픽 한국선수단 응원"

6월 14일 응원메시지 발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이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상진 스님은 6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간 쏟아낸 땀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 시간에도 비지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을 대한민국 선수단은 무한불성(無汗不成)이란 말처럼 쏟아낸 땀만큼 개인의 기록 달성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실력을 발휘해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태고종 전 종도와 함께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개최되는 것이 올림픽"이라며 "이번 파리올림픽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앞장서 페어플레이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화합과 평화의 지구촌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3회 파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국민 생명 살리는 상생 지혜 필요"

6월 14일, 의료현장 정상화 호소
"상생 방안 위해 지혜 모아줄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진료 거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의료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상생하자"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14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의료 개혁을 향한 갈등과 진통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단 한사람의 생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빠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의사들은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집단 휴업이라는 극한적인 방편은 생명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면서 "의료 현장을 빨리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마음을 견지할 때 종교계와 국민들은 그 진심에 존경과 지지를 보낼 것이니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수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당선

6월 19일, 만장일치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사진〉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종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수경 스님은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진행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등 위원 총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경 스님은 1980년 수계했다. 조계종 문화부장을 비롯해 고시위원회 실무위원, 동국대 강사 및 삼선불학승가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임은호 기자

공 고

종단명칭 변경

■ 종 단 명 : 대한국불교 조계종
■ 총무원장 : 응 천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1길 52

상기 종단은 2024년 5월 28일부로 대한불교 호국종(총무원장 응천)으로 종단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불기2568년(2024) 6월 15일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

대한불교 호국종

입종 및 사암등록 모집안내

부처님의 일불제자로써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대한불교 호국종을 이끌어 나갈 종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종 서류
1.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통
2. 주민등록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 3매
4. 법당 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5.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모든 개인(寺, 庵)의 자산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본 종단은 종헌, 종법으로 보호하며 사암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창건주(주지)가 전적으로 운영하며, 본 종단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 호국종
등록번호 : 101-82-68274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1길 52
010-5826-0108 / (02)379-5502 / 팩스 : (02)395-0510